

No.20161130-00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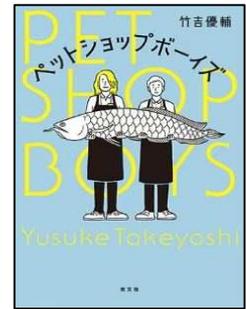
제목: PET SHOP BOYS

저자: 다케요시 유스케

페이지수: 324

장르: 소설

출간일: 2016년 09월 15일



<내용소개>

시끌벅적 화기애애한 펫샵과 아르바이트 청년들을 중심으로 펼쳐지는 청춘 소설

작가 다케요시 유스케는 한국에는 잘 알려지지 않았지만 《계승범(襲名犯)》으로 제59회 에도가와 란포 상을 받으며 데뷔한 신예작가다. 세 번째 작품인 이번 소설은 가벼운 미스터리 요소가 들어간 청춘소설이다.

대학생 '미나미 가쿠토'와 수의학과 출신의 동물 애호가인 '쿠리스 코타'는 대형마트(홈센터) 안에 있는 펫샵 <Pet Family>에서 아르바이트를 하고 있다. 포유류와 열대어, 곤충부터 파충류에 이르는 다양한 동물들을 취급하는 곳이다. 스무 살 동갑내기 청년 가쿠토와 코타는 동기이며, 점장 대신 모든 업무를 총괄하는 매니저이자 직원교육을 담당하는 '카시와기'에게 일을 배운다. 때로는 까다로운 면이 있는 회계담당자 '마키타'에게 혼나기도 하고 퇴근 후에 카시와기와 술을 마시러 가기도 한다. 시끌시끌하면서도 화기애애한 이 펫샵에서 가쿠토와 코타가 겪는 일들이 여섯 편의 에피소드로 등장한다.

첫 번째 이야기의 주인공은 7세 소녀 '루리'로, 동물을 너무 좋아해서 학교 후에 항상 펫샵에 들르는 단골손님이다. 코타는 어느 날부터인가 힘이 없어 보이는 루리를 걱정하며 사무실에서 휴양 중이던 '앵무새' 루리를 데려온다. 루리는 이름이 똑 같다는 이유로 매우 예뻐했는데, 오랜만에 본 앵무새가 갑자기 "죽어"라며 폭언을 하는 바람에 사태가 악화되어 버린다. 가쿠토와 코타는 대체 누가 그런 말을 가르친 것인지 밝혀내려 한다.

두 번째 이야기에는 말미잘과 소라게가 주요 소재로 나온다. 펫샵에서 말미잘을 구입해 간 손님이, 말미잘이 어항의 소라게를 덮치고 있다며 다급하게 연락을 해 온다. 이들은 무슨 일인지 궁금해하며 출장방문에 나서 진상을 파악한다.

이외에도 각 에피소드마다 여우, 아메리칸 숏헤어 고양이, 강아지 등 여러 동물들이 등장한다. 전반적으로 유쾌하지만 펫샵에 대한 오해가 제시되기도 한다. 단기 지원을 나온 직원은 '펫샵은 인기동물들을 취급하다가 유행이 지나면 버리는 혐오스러운 곳'이라며 대놓고 싫어한다.

소설은 미나미의 시점에서 주변인물 코타, 카시와기, 마키타와 함께 겪는 일들을 묘사한다. 금발

을 한 코타가 머리카락을 손가락으로 꼬며 수다를 떠는 모습, 동물에게 이름을 붙이고 정을 주는 코타의 행동을 저지하는 카시와기가 새만 보면 기겁하는 모습, 도망친 동물들을 황급히 쫓는 장면 등은 캐릭터에 매력을 더해준다. 가쿠토와 코타가 동물을 대하는 진심이 느껴져 가슴이 따뜻해진다. 동물에 대해 잘 모르거나 좋아하지 않는 사람도 웃으면서 읽을 수 있을 것이다.

<목차소개>

Little Lady / Nervous Cat Woman / Foxs in Rainy Day / Amphibian Love / Samoyed Smiles / Loneliness Animal

<저자소개>

다케요시 유스케

1980년 이바라키 현에서 태어났으며 니소가쿠샤대학 문학부를 졸업하였다. 토요대학 대학원에서 일본문학을 전공, 이바라키의 도서관에서 사서로 일하며 소설 집필을 이어갔다. 2013년 《계승범(襲名犯)》으로 제59회 에도가와 란포 상을 받았다. 두 번째 작품인 《레밍스의 여름》은 영화화 되어 2017년 개봉을 앞두고 있다.

No.20161130-002

제목: 나의 미튼 씨

저자: 히가시 나오코

페이지수: 256

장르: 소설

출간일: 2011년 07월 12일



<내용소개>

미스터리한 존재 '미튼 씨'를 만나며 일상의 행복에 감사하게 되는 이야기

우리나라와 일본을 비롯한 아시아권 국가에는 집마다 신이 있다는 민간신앙이 전해 내려 온 경우가 많다. 부엌, 화장실, 안방, 마루 등 세부 장소를 거점으로 잡고 집안의 운수를 돌봐준다는 형태다. 히가시 나오코의 《나의 미튼 씨》를 읽다 보면 이런 가택신 전설이 얼핏 떠오르기도 한다. 미튼 씨는 어느 날 마루 밑에서 튀어나온, 인간인지 아닌지 알 수 없는 정체불명의 존재이기 때문이다.

주인공 아카네는 평범한 직장인 여성이다. 해외근무 때문에 비어 있는 외삼촌의 집으로 이사를 하던 날, 생각보다 넓고 좋은 집에 감탄하던 아카네의 앞에 무언가가 나타나 누구냐며 소리친다. 신장 약 50cm, 신생아 만한 크기의 작고 작은 아주머니 '미튼'씨다. 작은 아버지는 아주 예전부터 그 집 마루 밑에 살고 있던 요정 같은 존재라며 잠에서 깨어난 이상 소중하게 돌봐줘야 한다고 거듭 부탁한다. 아카네는 매우 당황스러워 하면서도 시키는 대로 그녀를 잘 돌본다. 물론 무서워하지 않고 잘 받아들이는 데에는 아카네의 태평한 성격도 한 몫 했다. 하지만 붉은색 옷을 입고, 과일을 좋아하며, 목소리가 큰, 이 비밀스러운 동거인은 주변의 의심을 불러온다. 남자친구인 쇼지는 미튼 씨에 대해 알고 나서도 좀처럼 받아들이지 못하고 심한 말을 해서 서로 싸우기도 한다. 잘못 걸린 전화 덕분에 우연히 재회한 친구 미호와도 여러 가지 일로 엮이게 된다. 미호의 어린 딸은 태어날 때부터 계속 잠든 상태로 병원에 있고 남편은 배를 타고 떠나 반년 넘도록 소식이 없다. 이야기는 아카네와 미튼 씨를 둘러싸고 벌어지는 일상적인 에피소드에, 살면서 마주하는 불가사의와 슬픔을 자연스럽게 녹여낸다. 아카네가 미튼 씨와 만나며 점점 의지하게 되는 놀라운 일들이, 미호가 직면한 비극 같은 일들은 우리 주위에서도 충분히 벌어질 수 있다. 아카네의 주위 사람들이 미튼 씨의 존재를 알게 되고 수용하게 되었을 때, 외삼촌이 돌아오며 이야기가 극적으로 전개된다. 아카네는 그의 과거, 집을 떠날 수 밖에 없던 이유를 이해한다.

이 소설은 풍부한 상상력을 발휘해 판타지 동화 같은 설정의 이야기를 그려냈다. 독특한 설정의 '미튼 씨'를 독자들이 그대로 받아들이게끔 하는 부분에서 작가의 능력이 돋보이며, 남자친구 쇼지의 냉정함이나 삶에 대한 고찰은 현실적이다. 인생에서 겪는 슬픔이나 기쁨은 바로 사라지지

않고 그 시기에 남아있다. 소중한 사람을 마음에 잘 품고 있다면 아무리 멀리 떨어져 있어도 계속 함께 있는 것과 같다는 것을, 미튼 씨가 가르쳐 줄 것이다.

<저자소개>

히가시 나오코

1963년 히로시마 현에서 태어났다. 1996년 <풀로 만든 왕관을 쓴 방문자>로 제7회 가단상을 받았다. 가집으로는 《하루하루씨의 리코더》《청란》《히가시 나오코 모음》《10층》, 소설《약국의 타바사》《소식을 알리는 자의 장소》《달콤한 물》《수은등이 꺼질 때까지》, 에세이《별》, 그림책《비가 툭툭툭》《폭신폭신킨 벚꽃》《눈 후후후》등의 저서가 있다.

No.20161130-003

제목: 현명한 아이로 키우는 최고의 공부법

저자: 사이토 다카시

페이지수: 256

장르: 육아

출간일: 2016년 11월 24일



<내용소개>

부모의 의욕과 관심이 아이 교육의 격차를 만든다?

아이를 어떤 사람으로 자라게 할지 고민하는 부모들을 위한 현명한 교육법!

올해 초, 부모의 사교육비 지급 능력이 자녀의 학업성적에 큰 영향을 준다는 연구결과가 나왔다. 이제는 부모의 고학력 여부보다도, 부모의 경제력 혹은 사회적 위치가 자녀의 학업 성취도를 향상 및 개선시킬 수 있는 것이다. 이런 경향은 점점 심화될 것으로 전망된다. 서민층 가정의 부모와 자녀를 맥 빠지게 하는 현실이다.

한국도 일본도 비슷한 상황이다. 일본 최고의 교육심리학자이자 공부 전문가인 사이토 다카시는, 현재 사회 풍토 속에서 한 줄기 희망을 내린다. 경제격차가 아닌 부모의 관심과 의욕의 차이가 교육의 차이를 만들 수 있다는 것이다. 일본의 학부모들은 자식에게 좀 더 편한 인생을 선사하기 위해 처음부터 에스컬레이터식 진급이 가능한 학교에 보내는 것, 아니면 올바른 학습태도를 익혀 상급학교의 수험을 정면으로 돌파하게 하는 것 중 한 가지를 택하게 된다. 어느 쪽이든 자녀가 초등학생 때까지 '더 높은 성과를 내는 공부 방법'을 마스터 하는 것이 핵심이다. 저자는 후자에 초점을 맞춰, 자녀가 학교를 졸업하고 사회에 나가서도 덜 어려움을 겪는 <최고의 공부 방법>을 소개한다. 점수화되는 성적뿐 아니라 자신의 특기와 강점을 파악하여 계발시키고, 서툰 것은 극복해내는 힘을 지니며, 스스로 목표를 설정해 노력하고 달성하는 능력을 갖춘 현명한 사회 구성원으로 키워내는 것이 최종 목적이다.

1장에서는 지금 시대에 요구되는 새로운 '현명함'을 정의하고 공부를 통해 얻어내야 할 것들을 설명한다. 2장은 아이가 초등학교에 입학하기 전에 추상성과 아름다움 등 고차원적인 가치를 체험하는 정조(情操)교육이 이루어져야 함을 주장한다. 3장에서는 본격적으로 공부를 하기 전에 몸과 마음을 가다듬을 수 있는 호흡법과 음독 방법, 시간관리능력을 키우는 방법 등을 전한다. 독자들은 자녀가 속하는 유형과 그에 적합한 공부 형태를 알 수 있다. 4장에서는 아이가 반드시 익혀야 할 모든 공부의 공통된 패턴을 해설하며, 마지막 5장에서는 앞서 등장한 내용에 기초해 주요 교과 과목 별 공략법을 구체적으로 공개한다. 말미에 수록된 <최고의 공부 방법-힌트집>에서는 아이의 학습과 부모의 지도 방법에 관한 질문들을 Q&A로 정리해 궁금증을 해소할 수 있

게 하였다.

자녀의 공부를 위해 좋은 것을 해주고 싶은 마음은 어느 부모나 마찬가지다. 또한 돈을 투자해 시험 점수만 높여서는 요즘 시대에 살아남을 수 없다. 아이를 어떤 사람으로 자라게 할지 거시적인 관점에서 방향을 잡아줘야 하는 부모에게 유용한 타이틀이 될 것이다.

<목차소개>

시작하며: 현대 사회에서 살아남기 위한 '공부'란?

제 1장: 새로운 "현명함"을 길러주는 방법

제 2장: 초등학교까지의 교육 방법

제 3장: 공부에 임하기 전에

제 4장: 공부에는 패턴이 있다

제 5장: 각 교과목의 <최고의 공략법>

<최고의 공부법> 힌트

<저자소개>

사이토 다카시

1960년 시즈오카 현에서 태어났으며 1985년 도쿄대학 법학부를 졸업하였다. 동 대학원 교육학 연구과 박사과정을 거쳐 현재 메이지대학 교수로 재직 중이다. 전문 분야는 교육학, 신체론, 커뮤니케이션론이다. 《독서는 절대 나를 배신하지 않는다》, 《어른을 위한 쓰기의 모든 기술》, 《어휘력이 교양이다》, 《누구나 쓸 수 있는 독서감상문》, 《이상적인 국어교과서》, 《2000자를 쓰는 힘》, 《신체감각을 되돌리자》, 《소리 내어 읽고 싶은 일본어》, 《잡담이 능력이다》 다수의 저서가 있다.

No.20161130-004

제목: 트럼프 대통령의 충격

저자: 레이제이 아키히코

페이지수: 245

장르: 외교, 정치

출간일: 2016년 11월 24일



<내용소개>

트럼프의 대통령 당선 요인을 분석해보고, 앞으로의 대응 책을 고민한다

지난 11월 8일 드디어 미국의 제 45대 대통령이 도널드 트럼프로 결정되었다. 3차에 이르는 TV 토론에서 트럼프와 힐러리 두 후보가 보여준 모습은 사상 최악의 진흙탕이라는 오명을 얻을 정도였지만, 다수의 언론은 '그래도' 힐러리가 최종 당선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막상 선거를 치러보니 결과는 트럼프의 압승이었다. 세계 곳곳에서는 기현상에 가까운 이번 선거를 분석하고 곧 개막될 트럼프 시대를 예상하느라 분주하다.

1993년부터 미국에 체류 중인 일본인 저널리스트가 트럼프 당선 후 현지 최신 정세를 바탕으로 상황을 분석하고 미래를 고민하는 내용의 책이다. 일본은 한국보다 조금 먼저 비상 사태에 직면하게 되었다. 트럼프 대통령 당선인이 2017년 1월 20일 취임 첫날, 일본과 주도하던 TPP(환태평양 경제동반자협정)에서 탈퇴하고 양자 무역협정에 집중하겠다고 선언했기 때문이다. 확실한 수혜국 지위를 점하고 있던 일본은 혼란에 빠졌다. 미국이 탈퇴하면 사실상 별 의미가 없는 TPP를 계속 추진할지에 대해 찬반여론이 팽팽히 맞서고 있다.

책 본문은 총 3부로 구성되어 있다. 1부에서는 트럼프의 승리를 통해 누구나 짐작 가능한 부정적인 영향에 간략하게 소개한다. 2부에서는 처음 정치판에 등장했을 때에는 거품처럼 사라질 후보라 조롱 받던 트럼프를 공화당의 대표로 만든 지지세력과 인기 요인을 파헤쳐 본다. 다른 국가 탓으로 돌리는 지나칠 정도로 단순한 생각과 주장은 국내 고용불안에 시달리는 미국 내 저소득층에게 꽤 효과가 있었다. 과거의 영광, 명예, 고용, 노후 안정이 사라진 분노를 대신 표현해주는 듯한 제스처에서 만족을 느낀 것이다. 낮은 호감도로 고민한 힐러리와 차이도 여기에 있었다. 3부에서는 미국의 정치 패턴을 때로는 일본, 영국과 비교해보고 이번 선거의 진행 과정을 따라가며 트럼프와 힐러리의 승패 요인을 더욱 상세히 분석한다. 직전까지 트럼프의 탈세와 음담패설 및 성추행 스캔들, 힐러리의 메일 의혹 등으로 잡음이 끊이지 않던 상황 속에서 양 후보가 보여준 모습을 재조명한다. 저자는 일본이 어떤 자세를 취해야 할지에 대해 논하며 오히려 이번 시기를 좋은 기회로 삼아야 한다는 주장을 펼친다.

방위 분담금을 전액 부담하라거나 무역에서 높은 관세를 매기겠다는 취지의 발언은 우리나라에도 해당된다. 서둘러 차기 미국 정부의 움직임에 대비해야 할 시점이다. 한국은 트럼프 대통령의 등장을 어떻게 이해하고 터닝 포인트로 삼아야 할지, 생각하며 읽어볼 만한 책이다.

<목차소개>

제 1부: 트럼프 승리의 역사적 의미

(시대는 어떻게 변해갔는가 / 당장 움직이기 시작한 미국 / 일본이 지금부터 취해야 할 길)

제 2부: 물거품 후보에서 공화당 대표로

(트럼프 현상을 누가 뒷받침했는가? / Super Tuesday에서 트럼프의 대승 / 대통령 선거는 '패밀리 비즈니스' 등)

제 3부: 무엇이 승패를 결정했는가?

(감정론에 움직이는 정치, 일본 미국 영국의 비교 / 미국의 정치, 대립 축은 4개 / 트럼프 당선 가능성, 그 심층에 있는 것 등)

<저자소개>

레이제이 아키히코

작가 겸 저널리스트. 1959년 도쿄에서 태어났다. 미국 뉴저지 주에서 살고 있으며, 프린스턴 일본어학교고등부 주임을 맡고 있다. 도쿄대학 문학부를 졸업하고 컬럼비아대학 대학원 석사를 취득했다(일본어교수법). 후쿠타케서점(현: 베네세 코퍼레이션) 근무를 거쳐 1993년 미국으로 갔으며, 메일매거진 JMM에서 연재 중인 <FROM911/USA레포트>는 연재 700회를 넘겼다. 주간 메일매거진(유료) <레이제이 아키히코의 프린스턴 통신>을 전송하고 있다. 저서에는 《민주당의 아메리카, 공화당의 아메리카》, 《'반미' 일본의 정체》, 《위에서 내려다 보는 시선의 시대》등이 있다.

No.20161130-005

제목: Guilty-Free Pleasure: 살피지 않는 간식

저자: 아다치 카요코

페이지수: 224

장르: 다이어트, 건강

출간일: 2016년 09월 28일



<내용소개>

죄책감 없이 맛과 영양 모두 충족시키는 건강한 간식

사람들은 간식을 유혹처럼 받아들인다. 삼시세끼도 과하다는데, 간식까지 먹어서는 안 될 것만 같다. 게다가 출출할 때 손이 가는 것은 대체로 고칼로리 식품들이다. 하지만 간식 자체가 나쁘기만 한 것일까? 여기, 영양 밸런스를 맞춰주는 '착한 간식'을 소개하는 책이 있다. 슈퍼푸드나 기능성 식품은 등장하지 않고, 편의점이나 마트에 널려 있는 음식물들이 몸에 좋은 간식으로 변신하는 비결이 담겨있다.

오랜 기간 영양사로서 풍부한 임상 경험을 지니고 있는 저자는, 다음과 같은 사람들에게 특히 간식을 추천한다. 오후 8시 이후에 저녁 식사를 하는 일이 잦은 사람, 점심 식사 후 졸음이 쏟아지거나 머리가 멍해지는 사람, 편의점 음식을 애용하는 사람, 먹는 것 자체를 좋아하는 사람, 저녁에 집중력이 약해지는 사람, 75세 이상 노인, 살 찌고 있는 것을 느끼는 사람, 혈당치 조절에 신경 쓰라는 주의를 받은 사람. 일반 상식으로는 모두 간식을 끊어야 할 것 같은 사람들인데, 영양학적 지식으로 보면 오히려 반대라는 것이다.

1장에서는 간식을 통해 얻을 수 있는 이점을 충분히 설명한 다음, 2장에서는 헛헛한 위장과 마음을 모두 만족시키는 <9가지 간식 섭취 규칙>을 공개한다. 1일 간식 적정 칼로리는 200kcal까지이며 적정량만 먹을 수 있는 팁이 있다. 당질의 양에 주의하되 아예 배제해서는 안 되며, 단백질 성분을 추가하면 어떤 간식이든 더욱 훌륭해진다. 점심식사 4시간 후, 저녁식사 4시간 전이 간식을 먹는 최적의 타이밍이라는 사실을 명심해야 한다. 3장은 먹는 만큼 건강해지는 식습관을 소개한다. 살 찌는 것이 걱정이라면 칼로리 보다는 GI수치를 눈여겨보아야 한다. GI수치는 인체가 탄수화물을 분해해 혈당으로 변화시키는 속도를 나타낸 것으로, 값이 클수록 혈액 내 혈당치를 높이는 속도가 빠르다. 4장과 5장은 실전 편이다. 집에 항상 있을 만한 식품을 조합하여 건강한 간식을 만들어내는 방법을 전달하고, 편의점에서 쉽게 구입할 수 있는 간식 중 더 좋은 것을 가려낸다. '쿠키 vs. 초콜릿', '슈크림 vs. 메론빵' 등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는 메뉴 중 건강에 조금이라도 더 유익한 쪽을 알 수 있다.

이 책은 통설이 아닌 전문 지식에 근거하면서도 매우 실용적이다. 건강에 좋고 맛있는 식품을

간식으로 강요하지 않는다. 몸에 좋을 것 같지 않은 식품은 부정적인 효과를 줄이는 방법, 과하게 먹었을 때의 처방전도 함께 알려준다. 주먹밥 1개 분량의 간식으로 몸과 마음의 건강을 챙길 수 있는 스킬을 익혀보도록 하자.

<목차소개>

- Chapter 1. 날씬해지고 싶다! 더 건강해지고 싶다! <간식의 新 상식>
- Chapter 2. 간식 선택법 및 섭취법을 쉽게 이해할 수 있는 <중독되는 간식> 9가지 를
- Chapter 3. 먹는 만큼 건강해지는 <간식 생활>
- Chapter 4. 간식 애호가도 만족하는 <섭취법·조합법> 실천 방법
- Chapter 5. <편의점 메뉴>를 철저하게 탐구해보자! 건강을 생각한다면 어느 쪽?

<저자소개>

아다치 카요코

일반 사단법인 임상영양실천협회 이사장. 센보 도쿄 타카나와 병원 명예 영양관리실장.
주쿄단기대학 가정과 음식물영양 전공 졸업 후, 의료법인 병원을 거쳐 센보 도쿄 나카나와 병원 (현: 도쿄 타카나와 병원)에서 근무했다. 2014 년 일반 사단법인 임상영양실천협회를 발족하고 오랜 기간의 임상경험을 살려 연간 100 회 이상의 강연회를 통해 관리영양사 육성에 힘쓰고 있다. 주요 수상 실적으로는, 일본영양개선학회상 (1994 년, 2001 년), 후생노동대신상(2003 년), 일본영양사회 공로상(2008 년), 일본임상영양학회 교육상(2008 년) 등이 있다. 저서에는 《아다치 카요코의 실천영양관리 퍼펙트 마스터》, 《일본에서 가장 맛있는 병원식을 목표로! 센보 도쿄 타카나와 병원 500kcal 대 건강정식》, 《결정판: 영양학의 기본을 통째로 알 수 있는 사전》 등이 있다.

No.20161130-006

제목: 팀으로 일하는 사람들의 교과서: 상사와의 관계로 고민하는 모든 직장
인들을 위한 가이드북

저자: 쿠제 코지

페이지수: 224

장르: 비즈니스, 자기계발

출간일: 2016년 09월 16일



<내용소개>

'레질리언스(resilience)' 를 업무 현장에서 활용하는 방법을 알려준다

일본 후생노동성이 5년에 1번 실시하는 '노동자 건강 상황 조사'에 따르면, 직장에서 받는 스트레스는 크게 세 유형으로 나눌 수 있다. 1) 직장 내 인간관계 문제 2) 업무의 질에 관한 문제 3) 업무의 양에 관한 문제. 일본의 설문조사지만 우리나라를 포함한 어느 나라에서나 별반 다르지 않은 결과가 나올 것이다. 일이 힘든 것은 견뎌도 사람이 힘든 것은 견디기 힘들다는 말처럼, 인간관계는 뾰족한 해답도 없고 언제 해결될지 누구도 장담할 수 없는 문제다.

이 책의 독자층은 어딘가의 '팀'에서 일하는 사람들, 거의 모든 근로자이며, 상사/부하/동료/고객 등 다양한 관계 중에서 특히 '상사와의 관계'에 초점을 맞춘 내용이다. 설령 개인 프리랜서로 일해도 업무를 의뢰하는 상사 급의 사람은 있기 마련이다. 상사는 부하의 업무 만족도를 좌우하는 요인 중 하나이며, 그의 영향력은 구성원과 조직의 성장 격차로 이어진다. 한 인재의 육성에 관해 업무경험이 70%, 상사의 가르침이 20%, 트레이닝을 통한 연구가 10%라는 7:2:1 법칙에도 나타난다. 하지만 부하가 상사를 택할 수 없다는 점에서 모든 스트레스가 시작된다. 서로 맞지 않는 것을 알아도 상사는 자신의 스타일을 변화시키지 않을 것이며, 결국 부하가 능숙하게 대처하고 극복해 나가야만 한다. 저자는 상사 스트레스를 헤쳐나갈 핵심 키워드로 '레질리언스' 즉 자신이 처한 역경과 불화, 강력한 스트레스 상황에 유연하게 대처하는 능력을 제시한다.

본문은 상사를 '다혈질/ 너무 뛰어난 타입/ 아무 것도 하지 않는 타입/ 불합리하고 불공평한 타입'으로 분류한다. 자세히 살펴보면 할당된 양을 달성하라는 압박을 주거나 무작정 결점을 지적하며 안 된다고 고개를 내젓는 상사, 모든 업무 단계에서 하나하나 보고할 것을 요구하거나 자기 견해가 옳다며 부하의 의견은 수용하지 않는 상사, 성과에 대한 칭찬이나 명확한 지시는 해주지 않고 꾸밈이나 익살만 늘어놓는 상사, 자기 실수를 인정하지 않으며 불공평한 상사 등이다. 어디서나 쉽게 만나고 전해들을 수 있는 유형들이어서 쉽게 공감할 것이다. 총 16개의 케이스 스터디에서는 상황·파악하는 방법·감정 항목에 따라 문제를 정리한 다음 대처 방법을 설명하며, 이러한 스트레스를 성장의 기회로 삼는 비결까지 함께 전한다.

레질리언스는 마음의 방탄조끼인 셈이다. 그 힘을 익혀 제대로 활용한다면, 직장에서 상사와 원만한 관계를 유지하고 업무 성과를 높일 수 있을 것이다. 상사도 부하도 항상 완벽할 수 없는 똑 같은 '인간'이다. 팀에서 어느 위치에 있던 유용할 책이다.

<목차소개>

- 제 1장: 다혈질 상사
- 제 2장: 능력이 너무 뛰어난 상사
- 제 3장: 아무 것도 하지 않는 상사
- 제 4장: 불합리·불공평한 상사

<저자소개>

쿠제 코지

Positive Psychology School 대표. 게이오기쥬쿠대학 졸업 후, P&G에 입사해 고급 화장품 브랜드 경영을 경험했다. 재직 중에 레질리언스(resilience)에 대해 배우고 응용 긍정심리학 준석사과정을 수료했다. P&G 퇴직 후에 긍정심리학 실무가를 양성하는 사회인 대상 학교를 설립하고, 레질리언스를 활용한 기업 인재 육성에 힘쓰고 있다. 레질리언스 연수는 NHK의 <클로즈업 현대>에 소개되기도 했다. 주요 저서로는 《레질리언스를 단련하는 법》, 《리더를 위한 레질리언스 입문》 등이 있다.

No.20161130-007

제목: 아들이 셋 있습니다

저자: 마루사이

페이지수: 144

장르: 육아, 만화 에세이

출간일: 2016년 11월 24일



<내용소개>

아들만 셋인 집안의 정신 없는 일상, 허둥지둥 바쁜 나날을 담아낸 그림 일기

이 책은 세 아들을 둔 엄마의 그림 일기다. 초등학교 1학년 장남, 두 살 아래 유치원생인 차남, 이제 겨우 만 1세인 막내를 돌보아야 하는 엄마의 매일매일은 바쁘기만 하다. 본문에서는 다섯 가족의 분주한 일상이 지면에 펼쳐진다. 아이들은 짓궂은 장난과 기상천외한 행동을 해 부모를 깜짝 놀라게 한다. 갑자기 달려 나가거나, 소리를 질러 곤란하게 만들기도 한다. 하지만 예상을 벗어나는 엉뚱함은 당황스러우면서도 마냥 귀엽다. 시간에 쫓기는 조급한 나날 속에서도 잊지 않고 간직하고 싶은 빛나는 순간들이 있다. 작가는 그런 장면들을 사진 대신 그림으로 표현해 인스타그램에 공개하기 시작했다. 아들을 둔 엄마들의 전폭적인 지지를 얻어 현재는 팔로워만 8만 명이 넘는다. 그 인기로 힘입어 이미 공개된 내용에 새로운 내용을 추가해 책으로도 출간한 것이다.

자식이라는 존재는 엄마에게도 아빠에게도 끝없는 고민 대상이다. 동시에 가늠할 수 없는 기쁨을 안겨주기도 한다. 정신 없이 세 아들을 키우는 엄마의 일기가 또 다른 엄마들에게 위로와 공감을 선사할 것이다.

<본문이미지>



毎日どうでもいいことで勃発する兄弟喧嘩。この世の終わりのように泣き叫ぶ次男。嵐が吹くような騒動な毎日で泣き疲れる。嵐が吹いたらボジャントはどうでもいいことなんだけど、子どもにとっては嫌なことではないものすごく大事なことです。でもそのギャップの置き場所。ゴミ箱に捨てたはずなんですけど……

ゴミ箱に行くだけなのに、踏くなってから家の外に出るということが子どもたちにとってはたまに起きた経験が少なく、毎回くっついてきます。軽いものがあれば持ってもらい、ゴミ捨てが済んだらそのままだけ後歩。こらいう回でもない日常こそが幸せです。

No.20161130-008

제목: 일언력 (一言力): 한 마디 말의 힘

저자: 카와카미 테츠야

페이지수: 220

장르: 자기계발

출간일: 2016년 11월 30일



<내용소개>

강한 영향력을 행사하는 '한 마디 말'을 자신의 무기로 만드는 방법

“말이 씨가 된다”는 속담이 있다. 우리 조상들은 말에 힘이 있다고 믿으며 말조심을 강조해 왔다. 중요한 일을 앞두고는 부정적인 생각을 입 밖에 내는 것을 삼간다거나 연초부터 대보름까지는 타인에게 덕담만 건네는 풍습도 여기서 비롯되었다. 이런 사고방식은 한국뿐 아니라 중국과 일본 등 동북아시아 지역에서 발견된다. 일본에서는 말에 깃든 힘을 ‘언령’이라 칭했으며, 이 언령을 모시는 신은 좋은 말이든 나쁜 말이든 모두 한 마디로 표현했다고 한다.

유명 카피라이터인 저자는 이 책을 통해 ‘한 마디 말’의 중요성과 노하우를 전한다. 이야기가 길어지면 말하는 사람도 듣는 사람도 무엇을 말하는 것인지 헤매게 된다. 정보가 범람하는 이런 시대일수록, 방대한 데이터 속에서 사물의 본질을 명확하고 짧게 나타내는 능력이 절실하다. 기본 좋고 효율적인 소통을 이어나가는 기본 조건이 되기 때문이다.

본문에서는 ‘한 마디 말의 힘’을 7가지로 세분화하여 설명한다. 1장 ‘요약의 힘’은 결론을 처음에 제시하기 위해 갖춰야 할 구체적 요약·추상적 요약 능력을 소개하고 뉴스 기사를 활용한 연습 방법을 알려준다. 2장 ‘단언의 힘’은 상대의 신뢰를 보다 쉽게 얻을 수 있게 화자의 의사를 분명히 담아 딱 잘라 말하는 기술을 다룬다. 추측이나 예상의 뉘앙스를 제거한 단언에는 약간의 리스크가 있지만 그만큼 강한 힘도 있다. 3장 ‘질문의 힘’은 의견이 대립하거나 메시지가 잘 전달되지 않을 때 분위기를 효과적으로 전환하고 사람들의 시선을 끄는 의문형 사용법에 관한 내용이다. 4장 ‘단답의 힘’은 상대방의 질문에 시점이나 표현이 재미있는 짧은 코멘트를 하는 능력을, 5장 ‘명명의 힘’은 흥미를 자아내는 이름과 제목 붙이기 기술을 직업적 특기를 한껏 살려 풀어놓는다. 6장 ‘비유의 힘’은 타인을 단번에 이해시키면서도 억지스럽지 않은 비유를 순발력 있게 활용하는 기술을 전한다. 긴 이야기를 짧게 줄일 수 있는 비유는 탁월한 정치가와 종교가, 경영자, 작가와 만담 개그에서 배울 수 있다. 마지막 7장 ‘목표 설정의 힘’은 많은 사람들에게 내세울 목표를 인식시키는 슬로건 만들기에 대한 내용이다.

풍성한 예시와 친절한 설명을 통해, ‘한 마디 말’의 힘을 깨닫고 그 능력을 발전시킬 수 있는 방법을 익힐 수 있다. 상사에게 보고할 때, 부하에게 지시를 내릴 때, 고객 대상 프레젠테이션을

할 때, 신상품을 홍보하고 학교나 회사에서 면접을 볼 때 등등 일상생활의 다양한 상황에서 도움이 될 '말의 힘'을 길러줄 책이다.

<목차소개>

시작하며

제 1장: 요약의 힘 - 그거, 13자로 요약해 봐

제 2장: 단언의 힘 - 딱 잘라 말하면 힘이 생긴다

제 3장: 질문의 힘 - 왜 '질문'은 마음에 일격을 던지는 것일까?

제 4장: 단답의 힘 - 찌르는 맛이 있는 코멘트를 계속 뽑아낸다

제 5장: 명명의 힘 - 이름을 붙이는 것은 생명을 붙여넣는 것

제 6장: 비유의 힘 - 상대방이 단번에 이해하는 정확한 예를 순간적으로 말하는 기술

제 7장: 목표 설정의 힘- 많은 사람을 이끌며 목표를 설정하고 슬로건을 만드는 기술

<저자소개>

카와카미 테츠야

카피라이터 겸 '쇼난 스토리 브랜딩 연구소' 대표. 오사카대학 인간과학부 졸업 후, 대형 광고에이전시 근무를 거쳐 독립하였다. 다양한 프로젝트를 맡으면서 '한마디 말의 힘'을 갈고 닦았으며, 다수의 수상이력을 갖고 있다. 이야기의 힘으로 회사와 제품을 빛나게 한다는 목표로 수법을 체계화하여 <스토리 브랜딩>이라는 용어를 만든 것으로도 알려져 있다. 저서에는 《물건을 파는 바보》, 《작지만 모두 좋아하는 인기 회사》, 《그 연설은 어떻게 사람을 움직인 것일까》 등이 있다.

No.20161130-009

제목: 당신의 하루가 세계를 바꾼다

저자: 구스노키 시게노리(글), 후루야마 타쿠(그림), 하나오카 치구사(번역)

페이지수: 52

장르: 아동 그림책

출간일: 2016년 11월 26일



<내용소개>

호세 무히카 대통령의 추천 도서!

'오늘을 빛나게 할 10개의 질문'을 여행객과 청년의 이야기가 일본어와 영어로 실린 그림책

한 여행객이 있습니다. 그는 세계를 돌아다니며 동물, 식물, 날씨, 물건을 만드는 기술, 여러 나라의 언어 등 정말 많은 것을 배웠습니다. 항상 웃는 얼굴을 하고서는 만나는 이에게 자신이 알고 있는 것을 친절하게 알려줍니다. 그는 가르침을 청하는 사람들에게 '당신의 하루가 세계를 바꾼다'고 강조합니다. 우리는 세계 약70억 인구 중 고작 한 명에 불과하고, 우리가 마주한 오늘은 무수한 시간 중 고작 하루에 불과합니다. 하지만 자신과 주위 사람들만이라도 행복하고 평화로운 하루를 보냈으면 좋겠다는 바람을 갖고 행동에 나선다면 어떻게 될까요? 1인이 2인이 되고 10인이 되고 100인이 되면, 변화의 결과도 그만큼 커질 것입니다. 여행객은 공장에서 휴식 중인 청년들에게, 광장에서 뛰어 노는 아이들에게, 밭에서 일을 하는 사람들에게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오늘 가정과 학교와 직장에서 하는 행동이 지역 사회와 나라를, 세계를 만들어갈 수 있다는 가치관을 전파한 여행객은 또 새로운 곳을 향해 떠납니다. 그 여행객의 말을 들은 사람들 중, 여행객의 말에 깊이 공감한 한 청년이 있었습니다. 세계를 바꿀 하루를 만들어낼 구체적인 방법도 배웠습니다. 자기자신에게 시시때때로 10개의 질문을 던지는 것입니다.

당신은 지금 웃는 얼굴입니까? 당신에게 소중한 사람은 누구입니까? 당신은 소중한 사람을 위해 무엇을 할 수 있습니까? 당신은 다른 사람과 사회를 위해서 무엇을 할 수 있습니까? 당신은 자신의 양심에 따라 행동합니까? 당신은 '깨달음'을 중요하게 여깁니까? 항상 솔직하게 고맙다는 인사를 전합니까? 당신은 어떤 사람이 되고 싶습니까? 그리고 어떤 하루를 지내고 있습니까? 마지막 질문은 다시 처음으로 되돌아갑니다. 당신은 지금 웃는 얼굴입니까?

이런 질문들에 만족스러운 답을 내놓기 위해 해야 할 행동들은 어렵고 대단한 것들이 아닙니다. 웃는 얼굴, 상대의 입장에서 이해하기, 맡은 일과 역할에 충실히 임하기, 감사의 마음을 바로 표현하기, 조금 더 나은 하루를 만들겠다는 의지를 잊지 않기 등입니다. 청년은 이 10가지 질문을 일상 속에서 던지며 실천하고자 노력합니다. 이렇게 보다 나은 세상을 실현해 갑니다.

이 그림책은 여행객과 청년의 스토리를 통해 조금씩 이 세상을 바꿔나갈 수 있는 방법을 제안하고 있습니다. '세계에서 가장 가난한 대통령'으로 불리는 우루과이 전 대통령 호세 무히카의 추천 도서이기도 합니다. 초등학교 고학년부터 성인에 이르기까지, 더 나은 오늘을 살고 싶은 남녀노소에게 힌트를 제시합니다. 오른쪽에는 영어로 쓰여있어 영어공부 효과도 얻을 수 있습니다.

<본문 이미지>

「あなたの一日が世界を変える」

あなたは、「バカな。なんて大きなことを言ってるんだ!」,
「そんなこと、できるわけないさ」と思うかもしれませんね。
でも、これから話すことは、国籍も性別も年齢も職業も関係なく、
世界中のだけれも、そう、あなたも、やろうと思えば、たった今から、
一人で始められることなのです

彼は、語りました。
あるときは、工場の休憩時間に
くつろぐ青年たちの中で。



"Your day will change the world"

You might think, "Oh, that is nonsense! You are simply exaggerating it", or "That is impossible."
But this is something that anybody can start by him/herself, if he/she wishes to do so anywhere in the world, regardless of nationality, sex, age, career or anything of that sort.

He shared this idea.

Sometimes among the young men while they were resting during the break time at a factory.

一人や二人の願い、一人や二人の今日一日の過ごし方。

ちっぽけなことだと思いませんか。では、10人なら、どうでしょう。
 $\frac{10}{70}$ です。これは、 $\frac{1}{7}$ のときとくらべると世界の今日という
一日が10倍、そして、世界の $\frac{1}{7}$ が、平和で幸せな、
よい一日になるということなのです。
100人なら、1000人なら、そして1億人ならどうでしょう。
それが、明日も明後日もそうであるならどうでしょうか。

彼は、語りました。
あるときは、畑の収穫を終えた人たちと夕日を浴びながら。



The good will of one or two people, the way they live their day, do you think that it is merely trivial?

Then how about 10 people? That will be ten seven-billionths of the world. That means that the world is 10 times more peaceful and happier compared to the day that only I myself tried. One seven-billionths of the world will be more peaceful and happier. Then what happens when 100 people, 1,000 people, or 100 million people try? And what will happen if they do so today, tomorrow and the day after tomorrow?

He shared this idea.

Sometimes with the farmers who finished harvesting from the yard at the sunset.

あなたは、素直な心で「ありがとう」が出来ますか？

素直な心で「ありがとう」を言きましょう。きっと、言われた相手も、そして言ったあなたも、心が明るくなるにちがいない。
感謝の心をこめた「ありがとう」。それは、幸せを生み出す言葉なのです。

青年は、昼間は工場で働き、夜は遅くまで医師になるための勉強をしました。休みの日には寄付を集め、そして、すずんで手伝ってくれる人たちによって病院の修繕を始まりました。



Can you say "Thank you" from the bottom of your heart?

Say "Thank you" with honesty. Both the person to whom you said "Thank you", and you will feel brighter.
"Thank you" with honesty; that is a word to create happiness.

The young man worked at a factory during day time and studied hard until late at night to become a doctor. On the holidays, he went out to raise funds for the hospital. He started renovating the hospital with those who offered to help.



<저자소개>

구스노키 시게노리(글)

1961년 도쿠시마 현에서 태어났다. 초등학교 교단과 나루토 시립도서관 부관장 등을 거쳐 현재는 아동문학을 중심의 창작활동 및 강연활동을 이어가고 있다. 《혼나지 않게 해주세요》, 《안경을 쓰면》은 전국 청소년 독서감상문 콩쿠르 과제도서에도 선출된 바 있다.

후루야마 타쿠(그림)

이와테 현에서 태어났으며, 도호쿠가쿠인대학 문학부 사학과를 졸업하였다. 서양화가 스기우라 아사오에게 사사하였으며 애니메이터, 광고제작회사 근무를 거쳐 일러스트레이터로 독립하였다. 대표작으로는 《달을 부르는 마법의 말: 마법사의 선물》, 《두견새와 걸은 성》 등이 있다. 여행을 모티브로 한 수채화풍경화 개인전을 각지에서 개최하고 있다.

하나오카 치구사(번역)

사이타마 현에서 태어났으며, 와세다대학 교육학부를 졸업하였다. 미국 미시건주립대학 대학원 석사 과정을 수료하고 영어동시통역사로 활약하였다.

No.20161130-010

제목: 꿈 속의 모험

저자: 도이 마키

페이지수: 28

장르: 아동 그림책

출간일: 2015년 08월 01일



<내용소개>

청소를 싫어하는 왕자님이 갑자기 꿈 속 세계에 갇혀 모험을 떠나게 됩니다.

물건 정리하는 것을 매우 싫어하는 왕자가 살고 있었습니다. 성 안에 있는 도서관은 언제나 책들로 어질러져 있습니다. 어느 날, 책을 읽고 있는 왕자를 향해 신기한 모양의 하트와 조커 및 트럼프들이 들어옵니다. 왕자와 조커는 하트의 정체를 책에서 먼저 찾아내겠다며 경쟁이 붙지만 좀처럼 찾을 수가 없습니다. 둘은 금세 지쳐 잠들어버립니다. 그리고 왕자와 조커의 꿈에는 스페이드의 왕이 나타나, 자신을 따라와 문제를 모두 풀면 하트에 대해 알려주겠다고 합니다. 스페이드 왕국에 가서 카드를 찾고, 클로버 여왕의 네잎클로버를 발견하고, 다이아몬드 왕자의 미로와 트럼프 카드의 가로세로 미로를 탈출하며 무사히 임무를 완수합니다. 마침내 손에 들고 있던 하트에서 연기가 피어 오르기 시작합니다. 과연 하트의 정체는 무엇일까요? 꿈에서 깨어나 현실로 돌아온 왕자와 조커는 왠지 모르게 행복한 기분이 되어 도서관을 말끔히 청소합니다.

이상한 나라의 앨리스를 떠올리게 하는 꿈 속 세계에서 작은 모험을 펼치는 왕자와 조커의 이야기가 신나게 펼쳐집니다. 선명한 색채를 사용한 동그랗고 귀여운 일러스트가 잘 어우러져 아이들의 시선을 사로잡을 것입니다.

<본문 이미지>

